

[큐티 세미나]
감정이 오고 가야 한다

‘큐티 리더 누구나 할 수 있다’ 김원태 저 / 두란노

큐티를 의무적으로 하면 점점 율법적인 사람이 된다. 하루라도 큐티를 하지 않으면 죄 의식을 느끼거나 좋지 않은 일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 이것은 큐티를 이상화하거나 일종의 종교 활동으로 취급하는 태도다. 이런 태도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었다. 또 이런 사람은 큐티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경향이 있다. 큐티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기쁨으로 해야 한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대하며 만나는 것처럼 말씀을 만나야 한다.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하면 계속 할 수 있지만 의무감으로 하면 오래 하지 못한다. 큐티를 며칠 안했다고 며칠 분량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부담스럽게 여기며 하기보다는 못한 것은 그냥 두고 그날 분량만으로 큐티하는 것이 훨씬 낫다.

큐티는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만남에는 자연스럽게 감정의 교류가 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감정적인 교류가 있어야 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노트에 적을 뿐 아니라 찬양도 하고 감동과 기쁨을 맛보는 큐티가 풍성한 큐티다. 감정적으로 사는 것을 위험하지만 감정 그 자체는 아름다운 것이다. 만약 감정이 불필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 ‘큐티 리더 누구나 할 수 있다’ 김원태 저 / 두란노

* 출처 : 온누리신문